

# 수동성 개념의 재해석에 의거한 한국 의료 문화 개선을 위한 제언\*

전 대 석\*\* · 안 덕 선\*\*\*

- I. 서 론
- II. 한국 의료 문화의 수동성
- III. 레비나스(E. Levinas)의 수동성과 윤리
- IV. 감성에 의거한 윤리적 접근의 가능성
- V. 결 론

## • 국문초록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한국의 의학 교육 환경에서 수동성의 특유한 모습과 속성을 드러내어 설명하고, 레비나스의 수동적-수동성 개념의 재해석에 의거하여 한국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 것이다. 만일 이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다음으로 생물학적 종-특정적 감각과 감정에 기초하여 인간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의 토대를 찾아보는 시도를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의학교육은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에 따른 식민시대로부터

---

\* 본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일반공동연구 사업임(2014S1A5A2A03065066).

\*\*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강사, 제1저자

\*\*\*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교신저자

시작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의학교육에 있어 식민지 문화 수용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양태를 보인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식민적 의학교육을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하였다. 한국의 의료문화와 의학교육의 특징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레비나스에 의해 발견된 수동성과 타자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는 한국 의료문화에서 문제가 되는 수동성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윤리적 견해를 제시한다. 한국 의료문화의 수동성은 레비나스의 승화된 수동성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한국 의료 환경에 재해석된 수동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의 의의는 레비나스의 이론과 전통적 유가사상, 양육방식의 관계를 분석하는 가운데에서 발견될 것이다.

한국 의료 환경에 적용하려는 레비나스에 의거한 새로운 수동적-수동성 개념이 그럴듯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음으로 실제 의료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적이고 실천적인 이론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생물학적 그리고 종-특정적 감각적 토대에 기초하는 공감의 윤리는 인간의 감각, 지각 그리고 감정에 의거하여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인간 행위의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 그럴듯한 것이라면, 그 시도는 윤리적 수동성과 타자성의 새로운 도덕적 토대를 제시하는 의미있는 도전이 될 것이다.

## • 주제어

수동성, 레비나스, 타자성, 감각, 공감

## I. 서론

인간의 행위는 감각과 지각, 정신작용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움직임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얽혀 있는 복합물이기 때문에 면밀한 탐구 과정을 통해서만 행위 유형의 특성과 속성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행위 유형의 특성과 속성은 생물학적 차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차원, 행동주의적 차원 그리고 문화적 차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인간 행위의 유형과 특성을 자연과학적 성과에 기대어 살펴보고자 한다면, 생물학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차원의 인과적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 행위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려는 시도는 자연과학적 성과에 기대는 접근법과 다소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인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상징의 사용에 의거한 각종 행동, 대상들, 관념들 그리고 감정들을 포함하는 현상의 조직”이기 때문이다.<sup>1)</sup> 따라서 문화를 조망하는 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의 접근법에 의해 단번에 문화의 모든 측면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특정한 행위 유형과 속성에 관한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특수한 행위 유형과 속성을 그저 그들이 가진 ‘문화’라고 간략히 말하는 것은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의사집단의 특유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동성의 특성과 모습 그리고 그 배후에 놓인 것들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의료환경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일이라

1) 화이트(L. A. White)는 “문화는 인간이 언어와 같은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징적’이며, 상징체계를 통해 같은 세대로 전파되고 다음 세대로 전승되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축적적이고, 문화과정은 인간이 자연의 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라고 주장한다. 레슬리 화이트 저, 이문웅 역, 『문화과학』, 아카넷, 2002, 158~160쪽.

고 할 수 있다. 의사집단의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이 가진 특유한 속성과 행위 유형은 그들이 속한 집단이 축적한 고유한 성격과 경향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고유한 의료환경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축적한 문화적 형성 과정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의미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동적인 의료환경과 문화의 형성과정과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수동성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하지만 수동성에 숨겨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수동성이 타자를 배려하는 도덕적 원천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개념을 실천적인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보아야 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찰할 것이다. 우선,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문화 그리고 교육을 고찰함으로써 그 주요 문제 중의 하나가 수동성임을 밝히고, 그에 대한 한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대안은 한국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부정적 의미의 수동성에 대비되는 계몽주의적 의미의 자율적 주체와 능동성을 확립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다 한국적인 특수성이 고려된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수동성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동아시아 문화에 속한 한국적 특수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대안 제시에 앞서 하나의 단초 형식으로 제시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작업이 충분히 다루어진다면, 재정립된 수동성 개념을 생물학적 차원에서 설명하려 할 경우 감각에 기초한 공통 감정과 공감에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

## II. 한국 의료 문화의 수동성

한국 의료 문화의 문제점으로 ‘수동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 문화 그리고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의료문화를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적 토대 없이 설명하는 것이 요원하거니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 또한 동아시아 혹은 유교문화에 대한 설명 없이 논의하는 것도 균맹무상으로 흘러버릴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문화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짧게나마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한국, 특히 근현대 한국의 특유한 의료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이다.

### 1.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과 축각에 기초한 수동성의 형성

한 나라 혹은 어떠한 특정지역에서 거주민이 보여주는 집단적 특징은 곧 사회적 특징이나 문화로 간주되며 이러한 문화는 구성원의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에 주변 환경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체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동질성이 오랜 세월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유이다. 또한 그것은 집단의 문화적 특징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인간이 최소한의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이미 주변 환경에 의한 자아 형성이 비-주체적으로 형성되고 나서부터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호프스테드(Hofstede)는 “인간은 누구도 수동적인 문화의 습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명한 바 있다.<sup>2)</sup> 우리는 특정한 문화적 배경, 언어적 배경 속에서 태어나며, 출생 이후부터 일정 기간 이러한 배경이 되는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형성하고 유지

2) Geert Hofstede et al, *Culture and Organizations*, 3rd ed. McGraw Hill 2010, p.11.

시켜주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된다. 문화적 동질성은 출생 이후 유아기를 거치며 가족과의 인간 상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결정과는 거의 무관하게 수동적으로 체화되어 가며,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어머니와 맺어지는 매우 강하고 진한 접촉이라고 할 수 있다.

미리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인간상은 출생에서부터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가족적 가치와 위계질서에 의한 수동성을 체화(embodied)한 것처럼 보인다.<sup>3)</sup> 인간상(humanity)<sup>4)</sup>의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자아획득 이전의 육아방식에 의해서도 결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문명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지 않아 곧장 아기를 위한 별개의 유아 침대에서 아이를 양육한다. 이런 서양 사람들과 달리 동아시아에서의 육아에 대한 경험은 아기에게 훨씬 더 높고 진한 촉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포대기 육아가 미국을 위시한 서구사회에서 애착육아(attachment parenting)로 각광 받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아기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 자라거나 또는 엄마의 가슴속에서 어린 유년기를 보내며 어머니와 침식을 같이 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정상적 육아법이다.<sup>5)</sup> 비록, 동아시아의 급속한 서구화 과정에서 육아의 형태도 그들의

- 
- 3) Chang, S, J. Financial Ethics and Cultural Heritage of Korea, 법학논총 15집,(2003), pp 192-193. 참조. Chang의 논문 주제는 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한국의 전통적 윤리관을 문제로 삼은 것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은 “공적 (시민)의식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192) 그러한 사회적 의식의 차원에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오랜 시간 뿌리 깊게”(192-193) 박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책무성”이 약한 모습(193),과 “가족과 공동체 존중을 포함하는 집단주의”, “합의적 의사결정”, “지도자와 권위자에 대한 경의(deference)” 성향을 한국사회의 일반적 약점으로 꼽고 있다. 또한 강준만의 『한국인 코드』, 인물과 지성사(2006)의 내용도 다소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를 담고 있다.
- 4) 철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에서는 “humanity”를 통상 인간성 또는 인성 등으로 번역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 맥락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인간상(人間想)”으로 옮긴다.
- 5) 김광호, 조미진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라이온북스, 2012, 51쪽.

관례를 따르는 경향이 두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동아시아의 어린이들은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이모와 고모들 틈에서 매우 강력한 피부 접촉을 통한 감성적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촉감적인 애착 육아는 자식과 부모 간에 매우 끈끈한 심리적,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촉감은 바로 수동적이며, 그 감각 자체가 수동성을 의미한다.<sup>6)</sup>

동아시아는 이와 같은 촉감적인 육아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교육의 인식과 방법에서도 서양의 그것과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서양에서의 교육은 피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최대한으로 많이 “끄집어내어 발전시킨다(bring out)”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동아시아의 전통적 교육의 의미는 피교육자를 “길러내다(cultivate, uprear)”의 뜻을 가진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 ‘가르치다’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육이라는 한자 단어는 ‘가르치다’로 대변되고, 가르치다는 ‘갈다(耕作)’와 ‘치다(養育)’의 의미가 조합된 것이다.<sup>7)</sup> 밭을 가는 것처럼 사람을 갈고 돼지를 치고 닭을 치듯이 자식도 갈고 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식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수동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선생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아서 학생을 성인이 되기 위한 전이 과정으로 보기 보다는 아직도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집단의 피보호자로 간주함으로써 수행된다. 동아시아인의 성장과정에는 서양에 비해 장시간의 수동적 삶에 노출되어 있으며, 비록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수동성의 연장이 지속된다. 장기

6) 텔젤리(L. Tengelyi)는 자아는 자신에 대해 반성으로부터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완전히 수동적인 정서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육아가 진한 촉감각에 의존하는 정서 형성으로부터 구성된다는 점에서 강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László Tengelyi, *Selfhood, Passivity and Affectivity in Henry and Levinas*,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Vol. 17(3), 2009, pp.401~403.

7)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61&qna\\_seq=6483](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61&qna_seq=6483), 2015.05.7)

간의 수동적인 삶은 어머니로부터의 직접적이고 진한 촉각적인 접촉 기간의 연장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문화에서 유아기 인간관계의 발달과정은 진한 가족적 가치가 바탕에 깔린 장기간의 촉각적 접촉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 속한 한국의 인간관계에서 진한 가족적 가치관은 가족이 아닌 제3자와 관계에서도 가족적 관계로 발전시키기도 한다.<sup>8)</sup> 이런 끈끈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는 매우 어려서부터 형성되어지는 감각으로서의 촉각 과잉 현상이 보여주는 증독증이기도 하다.

반면에, 서양의 교육과 성인화 과정은 계몽주의적 관점에서의 자율성, 자기 주도, 자기 구현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서양인의 자아(self)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의 촉각 기간을 보내고 촉각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인과 달리 빠른 독립성의 발달을 초래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동아시아와 다른 문화적 현상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에서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기 보다는 선생님이나 부모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고 평생 가족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서양에 비해 낮은 독립성을 갖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마치고 성인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사례의 비율도 서양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난다. 의과대학에 진입한 학생들의 절반 정도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생님이나 집안의 권유 즉, 부모의 권유로 의과대학에 진학한 경우다. 또한 서구 사회에서는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 재수 즉, 대학입시 합격을 위한 반복적 시도를 한다. 의과대학 입학이 자신의 의지이기도 하나 가족 집단의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연령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대학입시와 장기간의 의학교육기간 동안 이들을 지원하고

8) 이러한 비-혈연, 비-가족 관계의 타인에 대한 가족화 관습은 한국의 기업문화나 학교문화를 생각해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문화의 구성원들은 나이나 기수를 통해서 선배, 후배, 동료로 넘어서 형제나 남매 등의 틀에서 타인들과 관계 맺으려는 성향이 서구 문화권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하는 것 역시 가족의 몫이며, 법적 성인 연령이 훨씬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부모의 몫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정적인 수동성의 특성과 경향은 의학교육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다음 절에서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수동성과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2. 한국의 의학교육, 의료문화에서의 수동성과 문제점

한국에 서구 문명의 근대정신이 유입된 시기는 18~9세기경이며, 이 시기에 이르러 서구의 제국주의와 문명이 여러 아시아 국가에도 동시에 도입되었다. 서양에 의한 현대적 개념의 의학과 의료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종교적 이념과 서구 계몽주의의 확산을 목적으로 동아시아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양의학의 전파라는 명제 뒤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도 함께 하였다. 이런 역사는 아시아의 나라별 의료와 의학이 식민주체와 결부되어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영국식 의학이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식 의학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는 프랑스식 의학이 도입되었다.<sup>9)</sup> 비록 식민화는 되지 않았으나 태국은 영국식 의학이 도입되었고, 일본은 네덜란드 의학이 도입된 이후 일본인들의 선택에 의하여 독일식 의학을 채택하게 되었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의한 전도활동의 매개체로<sup>10)</sup> 의료가 선의의 목적과 더불어 금광채굴권 획득과 같은 경제적 이득에 대한 관심을 보인 선교사도 존재하였다.

한국에 있어 현대적 의과교육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악성 식민주의(malignant colonialism)가 혼재되어 강압적 문화이식(acculturation)의 수동적인 형태로 도입되고 정착되었

9) Zubair Amin et al. Medical Education in Southeast Asia: *Emerging Issu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Medical Education 2005: 39: pp. 829-832.

10) “한국 최초 의료선교사 알렌과 계중원(濟衆院)”, <감리교뉴스>, 2013년 12월 24일, (<http://www.km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 2015.05.12)

다. 반면에, 제국주의 일본은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통하여 획득한 국제적인 시야를 이용하여 능동적인 입장으로 독일식 서양의 의학과 문화를 자발적으로 이식하는데 성공하였다. 독일식 의학이 일본의 의학으로 정착함에 따라,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한국과 타이완은 독일식 의학을 일본의 환경에 맞추어 변형시킨 일본식 서양의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식 식민고등교육은 악성 식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 교육 정책이 기초가 되었고 고등교육 내 공공연한 차별 및 구별<sup>11)</sup> 등 구조적 폭력이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수동적인 현상은 현대 선진국이 주도하는 고등교육이 독립적인 자아를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인학습, 평생교육학습 그리고 자기구현 등 명확한 자기-주장적 습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매우 대치되는 속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적 소규모의 그룹 학습이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까닭을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수동성과 가족적 가치에 의한 집단성이 올바르게 작동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소규모 그룹 학습의 집단적 역동성이 서양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협동학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공동대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소규모 학습에서도 가족 간의 끈끈함과 유대감을 강조하여 가장 쉽고 편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 구성원간의 조편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협력이나 협동 학습이 집단적인 노력의 일종인 공모적 노력(collusive effort)<sup>12)</sup>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의과대학생들이 수동성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졸업 후 전공의교육에 진입하는 때는 부정적 수동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11) 기창덕, “1994 춘계의사학회” 자료 부분 재인용.

12) 안덕선, International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nference(2014), London, United Kingdom, 발표 자료.

라 서양의학은 초기에 개신교 선교사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한 식민서양의학 교육방법이 강제 이식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전공의 교육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의국교육을 통한 전공의 교육이 마치 우리 고유의 교육방법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통해 일본인들이 보여준 고등교육의 극심한 차별과 구별 정책은<sup>13)</sup> 그렇지 않아도 연령별, 성별 서열을 엄격하게 따지는 동아시아의 문화에 더하여 의국문화가 더욱 극심한 수직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었다.<sup>14)</sup> 이러한 관계 내에서는 복종과 순종 그리고 집단 내에서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아 이외의 개인적 자아는 수용되지 않는다. 의국의 전문직을 위한 병원 내 직업인의 삶과 이미 성인으로서 개인적 자아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개인적 자아에 의한 행동은 의국에 속하지 않는 외적 인사 혹은 가족 이외의 인사로 간주될 수 있다.

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하여 4년간 의국 내에서 생활을 하는 전공의 과정의 특징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기 쉽지 않게 만들고, 의국이라는 이름의 교육적 단위는 공적 영역의 교육 단위라기보다는 권투 도장이나 바둑 도장 등과 같은 보다 더 가족적 색채와 사적 영역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국제도 내에서는 서양식 현대적 전공의 교육목표의 개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아버지와 같은 교수들의 행동을 규범으로 알고 따라하는 것이 교육 목표를 대체한다. 이것은 과거 시대착오적인 주임교수제도의 그리고 식민시대의 잔존현상이다. 이러한 교육 형태는 전공분야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성장시키는 데

13) 일제강점기의 구별과 차별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an Young Rim,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10-194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52”와 “Lee, Sungho, *The Emergence of the Modern University in Korea*, Higher Education18(1989), pp.87~116”를 참조

14) 안덕선, 「의학교육의 역사적 인식」, *Korean J Med Education* 23(2), 2011, 79~81쪽.

는 일부분 유용할 수 있으나, 한 주체적 인간으로서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5)</sup>

한편 전공의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보여주는 성장 모습은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신입사원은 입사 후 보통 2-3년간 상당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받으며 기업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역량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제공받는다. 직장 내의 작동원리와 직장 외의 적응 능력도 같이 키워지는 것이다. 반면에 전공의 교육은 과거 의과대학 시절의 교수가 그대로 직장의 상사로 지속되며 대학병원에 찾아오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가 주된 경험의 전부이다. 이렇게 교육받은 전공의들에게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역량을 성장시킬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도 겪어 볼 수 없는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여있다. 더욱이 전공의의 인간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같은 병원, 같은 대학에 소속된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전공과별 또는 의국과 교실에 따라서 스스로를 구분하고 고립시켜 다른 부서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그 장벽이 매우 높아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타 직종은 물론 타 과의 사람들과도 수평적인 교류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드러난다. 이러한 인간관계 안에서의 의사소통의 특성은 작은 가족과 같은 소속 조직에 충성을 다하지만 병원, 학교, 사회 등 거대 담론이 필요한 사안에 무관심하거나 사회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성을 갖는다.<sup>16)</sup>

그럼에도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그나마 친절 교육으로 둔갑한 의사소통 교육과 병원경영에 대한 진료수입 압박정책으로 전통적인 전공의 행동을 바꾸어보려는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15) 고윤석 외 24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학교실 엮음, 『임상윤리학』, 「졸업 후교육(인턴, 전공의) 삶과 질」, 서울대학교출판부, 2014, 327~334쪽.

16) Yum June Ock, *The Impact of Confucian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Pattern in East Asia*, Communication Monography, Vol.55, 1988.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영논리에 입각한 친절교육과 의사소통 교육이 그런대로 수용되는 집단은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이다. 실제로 의사들이 갖는 속성은 주어진 의료 환경과 스스로 만든 자기 문화의 틈에 걸려 변화를 추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sup>17)</sup> 더욱 불행한 것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직시와 이에 따른 개인적 그리고 작은 집단적 권리의 침해를 수용하는 극도의 수용성이다. 즉, 수동성의 연장선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선해 볼 기본적인 방법론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틈에 걸린 것이다. 이러한 수동성은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변화의 의견이라도 표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는 폐쇄적 의료사회를 만드는 나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화 안에서는 의료윤리적 갈등상황이 발생하여도 스스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없을뿐더러 그 문제에 적실성 있게 대처할 수도 없는 문제를 초래한다.<sup>18)</sup>

따뜻한 촉감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적 따뜻함의 지나친 촉감의 연장선과 성인 교육에서 공적이고 사회적인 촉감의 결여는 자칫 잘못하면 의료사회 스스로가 자기중심적이고 고립화된 집단으로 추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잘못된 방향의 의국 문화는 가까운(proximity) 정서가 바탕이 될 수 있기에 봐주기(favoritism)와 파벌주의(factionism)라는 피할 수 없는 반윤리성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문화에서의 가족정서는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sup>19)</sup> 앞서 말했듯이, 가족정서는 친밀성을 근

17) WM. Theodore De Bary & Richard Lufrano, *Source of Chinese Tradition Volume 2, From 1600 through the 20th century*, p.569.

18) Ming-jung Ho et al. *A cross-cultural study of students' approaches to professional dilemmas: sticks or ripples*: Medical Education(46), 2012, pp.245~256.

19) 한국 의과대학의 의국 문화는 가족관계와 같은 근접성(또는 밀접성, proximity)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의국문화가 가족과 같은 근접성에만 의존하여 작동할 경우 반윤리적인 행위를 허용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접성은 제3자적 정의를 통해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Barnett,

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의 잘못된 실현이 곧 부정적 수동성의 발현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요청되는 작업은 바로 올바른 방향의 수동성을 정립하고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레비나스의 타자에 대한 수동성 개념을 통해 그것을 모색해보자.

### Ⅲ. 레비나스(E. Levinas)의 수동성과 윤리

#### 1. 레비나스의 타자에 대한 수동성 개념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한국의 의료문화는 오로지 부정적인 의미에서 ‘순종적(meek)’인 의사를 양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동아시아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긍정적인 관념의 인간상과 충돌을 일으킨다. 말하자면, 동아시아인은 공자를 숭상하고 문화적 자아가 정치적 자아에 우선하고 인간관계의 도덕성을 강조한 문화를 갖고 있는 매우 인간적인 인간상을 갖고 있다는 전통적 관념과 대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근대적 주체 개념으로 파악한 동아시아인들의 ‘부정적 수동성(negative passivity)’은 동아시아인들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바라본 군자(君子)나 현인(賢人)들의 모습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sup>20)</sup>

---

Clive, “Ways of Relating: Hospitality and the acknowledgement of othernes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1), 2005, pp.5~21.

- 20)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옳고 그름을 떠나 상하관계에 종속되는 모습은 ‘소인(小人)’으로 간주되어 배척되는 인간상으로 간주된다. 또한 모든 현대의 동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이 전통적인 동아시아적 가치를 지닌 인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하여, 당연히 현대 한국인이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으로 무장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유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그러한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도전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흥미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한편, 인간관계가 성별, 연령 그리고 직업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에 의해 위계지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의 단순성은 그러한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복잡성과 부딪힐 때 역설적 상황을 낳는다. 레비나스(E. Levinas)는 이와 같은 역설적 상황에서 발달하는 수동성의 윤리적 측면을 ‘타자와의 관계’로서 고찰한다. 그는 “수동성이란 곧 타자성에 대한 자신의 수용과 자신의 입장에 대한 것을 집착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레비나스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개념으로 수동성(passivity), 타율성(heteronomy) 그리고 회피불가성(inescapability)을 제시한다. 이상의 중요한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1)</sup>

수동성(passivity)은 힘과 남성다움을 근간으로 하는 능동성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타자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한 타자의 출현과 함께 비로소 발생하는 자아(self)는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수동성을 지니게 된다. 레비나스의 수동성은 가령 인지적 능력과 같은 어떤 기능적 차원에서의 수용성과는 다른 맥락으로 쓰이고 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수동성은 자아를 구성하는 근본 속성이며, 그 어떤 수동적인 것보다 더 철저히 수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동성은 ‘타자의 얼굴’을 하나의 신적인 목소리로 간주하는 대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타자의 존재는 주체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며, 주체가 타자를 능동적으로 인식하거나, 구성하는 방식으로 타자의 존재(얼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체는 타자에게 발가벗은 채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것이며, 어떤 지성적 작용이나 반성적 의식, 그 이전에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칸트가 말하는 ‘무질서한 잡다’가 인식 주체에게 주어지는 것과는 전

것은 본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논리적 결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21) 레비나스의 “수동성, 타율성 그리고 회피불가성” 개념은 Levinas(1974), 김동규, 『자유와 능동성을 넘어서-레비나스의 주체 물음에서 수동성과 말함』, 『철학』, 2010, 105집, 그리고 레비나스 저, 김연숙, 박한표 역, 『존재와 다르게-본질의 저편』, 인간사랑, 2010, 참조.

혀 다른 양상이다. 이것이 레비나스가 말하는 주체의 수용성이다.

타율성(heteronomy)은 자율성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향유하고 즐기며 경험해 나간다. 이때 인간적 행위라는 것은 주체의 목적과 수단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과 수단의 설정과 선택은 순수 사유체인 주체가 자율적으로, 즉 자유 의지를 통해서 이뤄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인간적 삶, 혹은 현존재의 존재 양식은 이러한 계몽주의적 관점에서의 능동성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타율성에서 찾아진다. 레비나스는 자율성이 아닌 타율성에 의해서 인본주의(humanism)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재정립시키려 했다. 인간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은 물론 자연과 역사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을 자율성이 아닌 오히려 윤리적 맥락에서의 타자와의 관계성에서 찾아지는 타율성으로 설명하고 재조명한다.

회피불가능성(inescapability)은 수동적이라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이 주체에게 수동적으로 다가 온다면, 이는 회피불가능한 것이며, 주체가 타인의 목소리(얼굴)를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고,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듣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회피불가능성은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그는 수동성 및 타율성으로 기초적인 자아를 구성하며, 이렇게 구성된 자아는 회피불가능한 영역인 윤리적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된다. 그는 하이데거가 인간의 자유(자율성, 능동성)에 정의(윤리)를 종속시켰다고 보고, 이를 뒤집어서 정의(윤리)에 인간의 자유를 구속시킨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최소한 윤리적 관점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회피불가능한 책임, 고통, 대속을 짊어진 그러한 존재자들이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의 인간상을 면밀히 탐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개념이 바로 수동성이다. 그는 수동성을 타인의 보다 근본적인 요청이나 요구 또는 필요에 대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는 계몽주의 시대의 이상적 인간상인 자율적 자

기(autonomous self)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자아(self)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의 전복을 꾀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는 타자(no other than self without a self)’를 ‘책임성을 소환하는 타자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no self without another who summons it to responsibility)’로 역치시킬 것을 주장한 사상가였다.<sup>22)</sup> 이러한 설명은 한국의 (의예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동아시아적 문화속의 한국 학생들이 수동적이고 조용한 이유를 그의 타자를 통해 드러나는 수동성 개념, 즉 주체성의 수동적 책임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순종성은 주체와 객체 간 또는 자기와 타자 간에 상호 개별성을 부여하지 않고 상호 대화자 사이의 언어 체계 안에 편입되어 있지 않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호 개별성은 타자성에 대한 배타적 개념을 의미한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인간의 주체성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것은 매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책임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순종성 뒤에 놓여진, 즉 숨겨진 자아 속에 여전히 놓여 있는 자기의 책임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김동규에 따르면, 레비나스는 “말함(dir)”이라는 언어적 계기를 통해 어떤 “수동성보다도 더 수동적인 수동성”을 정립하고 이 수동적인 주체성이 타자에 대한 지속적인 윤리적 근간을 성립시킨다.<sup>23)</sup> 그에 따르면, 타인과의 만남 또는 타인의 얼굴(visage) 또는 현현(epiphany)은 곧 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그는 타인의 얼굴은 일종의 목소리와 같다고 말하면서, 이 목소리는 자신이 “의지에 따라 들으려고 하면 들을

22) Paul Ricoeur, cited in Peter Kemp, *Ricoeur between Heidegger and Levinas: Original Affirmation between Ontological Contestation and Ethical Injunction*, in Paul Ricoeur: The Hermeneutics of Action, ed. Richard Kearney, London: Sage, 1996, p.46.

23) 김동규, 「자유와 능동성을 넘어서-레비나스의 주체 물음에서 수동성과 말함」, 60~62쪽.

수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율적인 영역으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4)</sup> 그는 타인의 얼굴은 이유를 불문하고 나의 자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외적 사안이며, 이렇게 부름으로 다가오는 타인의 침입 명령은 언제나 윤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윤리적인 접근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된 사람으로서 윤리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주체성을 부여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5)</sup>

레비나스는 타인에 대한 책임은 가장 근원적인 수동성으로 “수동적인 수동성”<sup>26)</sup>을 의미하며 바로 이것이 주체의 주체성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 수동성은 타자의 출현과 함께 발생하는 윤리적 책임이다. 또한 그는 불어로 얼굴(visage)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실제로는 얼굴 이상의 의미를 갖는 ‘목소리’, 즉 우리말 ‘부름’으로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으로 승화시키고 있다.<sup>27)</sup> 이것을 아마도 레비나스가 갖는 종교적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늘이 바로 나를 택하여 명령하는 책임이 얼굴을 통한 부름으로 표현된 것이다. 실제로 사람은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서조차도 그 문제에 개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망설이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여기에 대하여 레비나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동성 이전의 수동성을 그리고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대속의 의미를 강조하며 대속이 수반하는 고통과 슬픔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내가 전혀 모르는 제3자도 나의 지인의 지인으로 보면 모두 나의 지인이요, 결국 타자는 남이 아니며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철학적으로 전개하고 있다.<sup>28)</sup> 그리고 책임에 따르는 중

24) 앞의 논문, 60쪽.

25) Levinas, E.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1974), Dordrecht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V<sup>e</sup>, 『존재와 다르게-본질의 저편-』, 24~48쪽.

26) 앞의 책, 39쪽.

27) 김동규, 「자유와 능동성을 넘어서-레비나스의 주체 물음에서 수동성과 말함」, 60~62쪽.

28) Roger Burggraeve, “Violence and the Vulnerable face of the Other: The vision of Emmanuel Levinas on Moral Evil and Our Responsibility”, *Journal of Social*

압감이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유대인 수용소 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독특한 경험과 유대교가 만들어낸 철학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윤리적 언어를 떠나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윤리성을 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가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역설적인 능동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윤리가 철학에 선행”한다고 말한다. 이 말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적용하여 생각한다면, 윤리 또는 도덕이 의사 자신의 생존이나 존재 자체에 앞서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 2. 레비나스의 계몽주의적 주체의 비판 그리고 자율(Autonomy)과 타율(Heteronomy)

서양인은 동아시아인에 비해 더 냉정하고 분석적이며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서양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 권리가 침해받을 때 자신의 입장을 더 잘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양인은 동아시아인에 비해 훨씬 덜 집단적이고 덜 가족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적 주장으로부터 동아시아인이 감성적으로 더 따뜻하고 넉넉하다는 결론이 바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서양인은 그 자신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감성 안에서 발원하는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으며, 그것에 기초하여 가족이 아닌 집단적 규범 속의 개인성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인간상은 근대 이후의 자율성 개념과 결합된 모습으로 개인적으로 불가침해적이고 타자에 대해

공격적인 내면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말하자면, 개인의 권리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 한에서 보이는 ‘인간적임’인 것이다. 레비나스는 이와 같은 서구의 계몽주의적 전통의 휴머니즘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 지점이 곧 그가 주장하고는 있는 휴머니즘과 자율성(autonomy)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어 있다.<sup>29)</sup>

근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서구의 인간상이 지나친 자율성의 보장과 확대 그리고 자기 긍정으로서 자아(ego)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서구의 인간상과 자율성(autonomy)은 분리될 수 없는가? 레비나스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타율성(heteronomy)과 인간상의 관계를 탐구한다. 그는 단적으로 과거 계몽주의적 휴머니즘이 남성 중심의 자기 자신의 영광에 기인하였으나 이러한 인간상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근거로 서양이 기존에 보여주었던 자기 주도적, 애고(ego) 중심적, 자율성에 의한 휴머니즘에서 벗어나 오히려 핍박과 천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와 같은 입장은 계몽주의 이후 현대적 생명윤리에서 보여주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수용인, 학생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타자성을 부여받은 모든 부정적 요소의 인간상에 대한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내적 시각의 한계를 초월한 자율성과 인간상의 분리가 가능하다도 보았고, 분리과정이란 바로 인간 내부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선과 악의 분별점 이전의 전원초적인 수동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와 자기중심적 시각이 아닌 타자를 앞세워 자신의 수동적인 위치를 정립시킨다는 것은 철학적 판단 이전의 윤리성을 강조한 레비나스의 초월적이고 수동적인 전원초적인 자아 설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레비나스는 이를 통해 수동성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였다. 데카르트식의 근대적 주체성(이성, cogito)의 사유로

29) Yves Charlesk Zarka, “Levinas: Humanism and Heteronomy”,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19(1), 2011, pp.111~120.

본다면, 동아시아인은 부정적인 의미의 순종성으로 표현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뿐더러, 오히려 정확하게 표현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동아시아 문화의 특성은 바로 이런 수동성이 갖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힘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의 수동성에 대한 레비나스의 이론을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구 사상의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적 수동성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정초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가 적절한 것이라면, 레비나스가 말하는 인간 주체의 수동성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설정된다는 점은 전통적 유교적 가치인 인간적임을 나타내는 인(仁)에 관한 현대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서구문화의 동아시아 정착의 제반 문제의 규명작업에 상당한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인간상에 비추어 레비나스의 수동성 개념을 접목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성장 배경의 차이점에 대한 탐사와 애착 양육이 인간상과 수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레비나스의 이론에서 수동성은 이미 선천적이며, 나아가 전선천적이기까지 하다. 수동성은 생명현상의 시초부터 갖는 원초적인 무조건적인 인간적 사랑의 제공과 수용으로서 인간이 갖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인 갖는 수동성은 생명의 발생부터 성인이 되도록 충분히 받은 애착과 밀착의 촉감적인 성장의 결과로 유추하여 볼 수 있으며, 이 지점에서 생명체의 피할 수 없는 촉각적 지각의 성장이 바로 “수동적 수동성(passive passivity)”<sup>30)</sup>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레비나스가 말하는 수동성은 “주체의 한 기능처럼 작용하는 능

30) 여기서 “수동적 수동성(passive passivity)”은 일종의 변증법적 종합명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동적 자세를 수동적으로 반응할 경우, 그것이 오히려 능동적인 대처로 발현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력<sup>31)</sup>을 뜻하는 수용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소위 인식론적 맥락에서 주체가 외부 대상을 지각, 인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피동적으로 주어지는 감각자료들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저 단순히 외부의 실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식 능력(감관)을 자극하여 인과적인 작용을 거쳐 인식 결과를 산출하는 의미의 수용성 개념은 레비나스가 말하는 수동성의 개념과는 무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각에 대한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관점은 최근의 철학적, 과학적 연구에서 많은 회의적인 반성을 불러오고 있다. 감각 자체가 가지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들과 기능들이 많은 문헌들에서 연구되고 있다.<sup>32)</sup>

감각적 수용체들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 지각으로서의 촉각적 상황에서 주체는 단지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의미에서의 수용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감각적 주체들은 레비나스의 개념을 따르는 수동적인 감각주체들인 것이며, 이러한 수동성은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레비나스의 주장처럼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마땅히 연구되고 탐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적 가치에서 감각적 그리고 촉각적 성장 과정은 타자에 대한 윤리적 요청에 대한 수동적이고 대속적인 감내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는 듯이 보인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의료문화에서 환자-의사간의 소통의 장애와 보수적인 의료계의 반-혁신적 성향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비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레비나스가 서구 유럽에 뿌리내린 자율성과 능동성 중심의 주체성을 비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 주체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동아시아의 지배적 전통인 감각적, 촉각적 생

31) 김동규, 「자유와 능동성을 넘어서-레비나스의 주체 물음에서 수동성과 말함」, 60쪽.

32) 이와 관련된 논의는 미셸 세르(Michel Serres)의 “과학의 역할과 철학적 소명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장 과정은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가 옳다면,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계몽주의적 능동적 인간상 그리고 감성과 감각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적(또는 유교적) 수동적(또는 레비나스적 개념) 인간상과의 조율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간상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교사상의 인(仁)과 비교하여 볼 때, 레비나스의 타자성과 수동적 수용성에 의한 자기-주체성에 관한 주장은 우리가 가진 인식과 많은 지점에서 닮아 있는 듯이 보인다. 레비나스는 휴머니즘을 개개인의 개별성을 기반으로 한 주체성으로부터 파악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타자로부터 출발하기에 전통 유교사상과 공유하는 지점이 발견된다. 즉, 레비나스에 따르면, 윤리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성이나 의식 이전, 혹은 사고나 반성 이전 단계의 혼돈스러운 의식 상태로 주체를 이행시키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윤리성의 존재를 윤리에 대한 인식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윤리는 철학에 선행한다.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그의 사상이 의미하는 바를 간추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수동이라는 것은 행위는 아니며 선택되어지지 않은 상태 이전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아니며 현재에 대한 분별이며 자아의 모든 의도로부터 분리된 수동적인 합성이다.<sup>33)</sup>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인의 존재, 특히 타인의 얼굴은 일종의 목소리이며 이런 목소리는 요청의 차원에서 주체에게 윤리적 관계 속에 자신을 철저히 수동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자와 소통한다는 것은 어떤 계산된 것 혹은 언어의 정보적, 기능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타자와 소통한다는 것은 언어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철저히 노출시키는

33) 김동규, 「자유와 능동성을 넘어서-레비나스의 주체 물음에서 수동성과 말함」, 62~66쪽.

것이다. 이러한 “타자에로의 노출성”은 “무사심성” 혹은 “근접성” 또는 “이웃에 의해 사로잡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타자의 마음이나 특히,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仁)이란 것을 측은지심(惻隱之心), 즉, 타자에 대해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동아시아적 유교 사상은 레비나스의 그것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맹자는 사단중의 한 가지인 인(仁)을 예증하기 위해서 ‘우물가의 어린아이’<sup>34)</sup> 사례를 들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러한 “근접성, 이웃에 의해 사로잡힘”이란 개념이 동아시아적 인(仁)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타인의 얼굴은 부름으로 다가오며, 이때의 주체가 경험하는 수동성은 동아시아 공동운명적 공동체로서의 대동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필요조건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 3. 레비나스의 수동성에 의거한 의료윤리적 해석과 한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레비나스의 주체성은 자아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주체성은 직업(醫業)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윤리적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말하자면, 의사가 최초로 직면하는 것은 능동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환자와 환자 이전의 질병과의 “회피할 수 없는 수동적 만남”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의사에 대한 선택과 주체성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의사 자아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를 제기

34) 맹자는 인간의 마음을 본디 선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특징을 불인지심(不忍之心) 즉, 차마 참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렸다. 그에 대한 사례로 우물가에 빠지려는 어린 아이를 보면,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일단 구하고 보려 한다는 것이다. 이때 어떤 계산적인 타산이나 명예를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미처 들기도 전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즉, 단지 측은한 마음에서 그러하는 것이다. 맹자(孟子), 공손추(公孫醜)편 참조.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의업이 갖는 회피불가능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 개인 또는 의사 집단의 자유로운 의지의 발현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의 차원에서 마련된 책임성과 윤리성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의료와 의사상(醫師想)을 구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의사는 자유의지에 의거한 능동적인 선택에 앞서 놓여 있는 타자(환자)에 대한 책임과 윤리성을 선택할 수도 없으며, 그것에 대해 도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회피할 수 없는 수동성으로서의 의사의 책임과 윤리성은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첫째, 환자에 대한 책임과 책무는 의사 자신의 의도나 자유의지에 앞서 존재한다. 그 책임은 선택되어진 것이 아닌 그 선택에 앞서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 같은 책무성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통상의 주체성을 넘어선 초월적인 주체성을 의미한다.<sup>35)</sup> 레비나스의 말을 빌어 말하자면, 환자(타자)의 고통스런 얼굴은 회피할 수 없는 명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는 “휴머니즘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율성을 다시 찾는 것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수동성의 재발견”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인이 보여주는 타율성, 수동성 그리고 순종적인 측면은 레비나스적인 의미에서 수동성에 기초한 초월적 주체가 선함(good)을 행하는 원초적인 선함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말하자면, 이것은 동아시아 문화의 인간상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과 성장 과정에 기초하여 부정적인 의미의 “순종성”이 아닌 긍정적인 의미의 “수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선, 본 논문이 유가적 전통사상과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가 사상과 레비

35) 물론 여기서의 초월성은 전통적인 철학적 담론에서의 초월성, 혹은 레비나스가 비판한 하이데거식의 현존재의 자유에 힘입은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스의 이론이 시대적, 사상-맥락적 배경 차이를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것이 또한 양자간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위협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소간의 비약적인 시도를 감행하는 이유는, 본 논문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한국의 의료문화, 의료교육의 부정적의미의 수동성<sup>36)</sup>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의 근대적, 계몽주의적 주체성의 확립이 아닌 레비나스의 수동성개념에 의거한 타자윤리와 향유하는 인간상이 한국사회에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시사하기 위해서이다. 말하자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단초로서 양자간의 유사성이 도입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점이 본 논문의 유사성 입론이 그저 희망적 사고나 필요에 의한 논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전통적 유가 사상과 레비나스 이론의 유사성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러한 유사성을 통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의료문화의 개선책으로서의 레비나스 이론의 적합성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 제시된 양자간의 유사성은 사실 완전히 독창적인 입론이 아니다. 선진유가사상과 레비나스 이론의 유사성은 김연숙(2002)<sup>37)</sup>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된 바가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연숙은 유가 사상의 ‘성性’, ‘적연감통寂然感通’, ‘달도達道’ 개념을 각각 레비나스의 ‘윤리적 자아’, ‘감성적 수용성’, ‘타자성의 윤리’ 개념과 각각 비교 대응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매우 흥미롭고 또한 경탄을 자아내기는 하

36) 본 논문은 동아시아적, 혹은 한국의 의료문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적 수동성과 레비나스의 이론에서 형성된 철학적 수동성의 개념을 혼동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 본 논문이 의도하는 목적이 문제시 되는 ‘수동성’을 승화된 ‘수동성’으로 개선시키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전자의 ‘수동성’과 후자의 ‘수동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비록 표기는 동일하지만) 전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후자를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37)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2002, 231~265쪽. 본 논문에서 참조되고 있는 부분은 이 책의 한 부분인 「타자윤리의 선진유가적 이해」라는 논문이며, 이는 동양철학회(2000년 5월 26일)에서 발표되었다.

지만 본 논문의 목적상 자세히 다루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단지 앞서 제시된 본 논문의 양자간 유사성 입론이 주는 생소함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관련성에 입각한 수동성은 결국 타자에 대한 “공감(sympathy)”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레비나스적 개념의 수동성에서 주체 또는 자아를 “타자의 출현과 함께 비로소 발생하는 자아(self)”로 파악한다면, 세계 안에서 회피할 수 없게 드러나는 또는 나타나는 개별 자아들을 “구체적, 실체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략히 말해서, 레비나스의 수동성 개념 분석을 통해 유교적 의미의 수동성을 재정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초된 그 개념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아의 수동성을 어떻게 감지하고 감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간략한 답변으로 생물학적 토대의 감각에 기초한 공감의 윤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다음 절에서 할 일이다.

#### IV. 감성에 의거한 윤리적 접근의 가능성

‘감각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감각은 능동적인 의미에서 “느끼는 것(feeling)”과 수동적인 의미에서 “지각하는 것(perception)”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또 다른 사람은 고통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리저리한 느낌을 가진다. 동시에 감각은 우리에게 개념을 주고, 외부 대상의 존재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제공한다.<sup>38)</sup> 외부 대상에

38) Reid, Thomas, “Essays on the Intellectual Powers of Men, II”, p.17, Gibson, James. J. *The senses considered as Perceptual Systems*, Boston: Houghton Mifflin, 1996, pp.1~2 재인용.

관한 이러한 개념은 자연의 작업인 동시에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의미에서 생물학적 특성이기도 하다. 또한 감각은 본질적으로 외부 대상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깁슨(J. Gibson)에 따르면, ‘감각하다’라는 동사는 ‘무엇을 감지하다’와 ‘(무엇에 대한) 감각을 가진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sup>39)</sup> 만일 그렇다면, 적극적인 시도로 볼 수 있는 전자의 경우와 소극적 또는 수동적인 시도로 볼 수 있는 후자의 경우 모두에서 외부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감각의 필요 조건으로서의 외부 대상의 존재와 외부 대상을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듯이 보인다. 그 둘은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건 또는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이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면, ‘수동성’을 재해석하기 위해 고찰한 레비나스의 타자에 대한 수동성 개념을 생물학적 차원에서 감각에 기초하여 고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연숙에 따르면, 레비나스 또한 인간이 가진 물질적 속성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감각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40)</sup> 이러한 의미에서, 생물학에 기초한 해석의 가능성을 맥셰(Robert J. McShea)의 생물학에 기초한 윤리적 가치이론에서 모색해보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생물학과 가치이론(Biology and Value Theory)”에서 인간의 도

39) Gibson, James. J. *The senses considered as Perceptual Systems*, p.1.

40) 김연숙은 레비나스의 감성을 통한 감각의 인식 방법을 논하면서 “데카르트는 감각적인 것을 합리성의 외부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통찰하였고(TI. 135) 칸트 역시 감성과 이성을 분리시키면서 표상의 종합적 인식은 물질과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레비나스는 이 같은 인식의 탁월성을 지적하면서 감성은 요소적 질과의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다.(TI.136) 감성은 향유이다. 이것이 감각적 존재로서 몸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레비나스는 인간 존재를 근원적으로 몸적 존재, 감성적 존재로 본다.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인식과 다르다.(TI.137) 몸을 가진 생명체로서의 자아는 요소적 물질세계에 놓여진다”고 말한다.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인간사랑, 2002, 78~79쪽, 209쪽.

덕 또는 가치 진술이 참일 수 있는 토대를 생물학에서 찾고자 한다. 그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간주관적인 상부구조가 있으며,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정초되고 종적으로 보편적이며 규범적인 가치이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으로 인간의 도덕을 근거짓는 가치의 근거로 인간의 “감정 또는 인간 본성의 심리학적 기초”를 제안한다.<sup>41)</sup> 맥셰에 따르면, 감정은 인간의 행동을 원인지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러한 감정을 공유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종적인 또는 종-특정적인(species-specific) 감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목에서 맥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여기서 옹호하려고 남아 있는 가능한 가치의 토대는 “감정”, “인간 본성” 또는 “심리적” 토대라고 다양하게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느낌 또는 감정이고,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진화된 종-특정적 느낌을 가지며, 각각의 감정과 느낌은 인간 종의 역사에서 생존과 생식의 결과를 갖는 어떤 일반적인 또는 전형적인 상황에 적합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간략히 말해서, 우리의 감정은 종-보편적이고, 따라서 우리의 평가(비슷하게 종-보편성)는 적어도 다른 인간들의 그것과 거의 일치할 것이다.”<sup>42)</sup>

또한 그는 생물학적 종으로서 일반적인 인간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리고 문화와 문화 사이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통해 각 개인의 또는 개별 문화의 감정이 유일하다는 의미에서 동떨어진 채로 개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앤다고 본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는 “우리는 붉음과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유일한 인간의 그 종이거나 미국인이서

41) R. J. McShea & D. W. McShea, *Biology and Value Theory: Biology and the Foundation of Ethics*, ed. J. Maienschein & M. Ruse, Cambridge Univ. 1999, pp.307~309.

42) *ibid.*, pp.310~311.

가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다.<sup>43)</sup> 또한 그는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이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사실을 공유하는 세계에 거주하고 공통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면,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도덕(common morality)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논의를 간략히 정리한다면, 그는 도덕 또는 규범 원리를 종-특정적인 속성으로 한정하고, 인간의 개별적인 행동의 원인을 감정으로 파악하며, 인간의 도덕 또는 규범 원리는 인간이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감정과 감각에 의거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맥쉴과 같은 입장을 따른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한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인간의 개별적인 행동 수준에 있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대주의에 관한 문제와 둘째, 인간의 유형적인 행동 수준에 있어 규범이 의무론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로 구분하여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 행동의 원인이라면, 생물학적 수준에서 그 감정은 적어도 유형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야 하고, 그 유형적인 결과는 인간 행동을 조건짓는 의무로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상대주의와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문화주의 또는 문화상대주의는 어떠한 가치판단도 정초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사실상, 문화주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보수적 관점을 위한 자연적 근거인 것 같다. ...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완전히 순간적이고 지역적인 문화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한 모든 신념을 잃게 된다”<sup>44)</sup>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이 문화주의 또는 넓은 의미의 상대주의를 반박하면서, 인간 본성의 윤리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행위의 이론이 아니라 동기나 감정의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 인간 행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감정”이고, 그는 감정과 모든 인지적 활동을 포함한 두뇌 상태 또는 물리적 상태에 의해 지시되

43) Ibid., p.312.

44) Ibid., p.310.

는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셈이다. 요약하자면, 맥슈의 이론에 있어 도덕성의 중-특정적 속성과 그 속성의 토대인 인간의 감정은 중요한 두 항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한 가치 이론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공감적 배려’에 의거한 도덕적 행위의 정당화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슬롯(Michael Slot)은 행위자에 기초한 접근법으로 규범 윤리학을 설명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모든 중요한 도덕적인 개념들과 구분들이 덕(virtue)있는 행위자들에게 기초하거나 그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생각을 ‘공감적인 배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sup>45)</sup> 우리의 현재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덕있는 행위자’가 아니라 ‘공감적인 배려’다. ‘공감적인 배려’는 인간의 종적 특성으로서 ‘감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슬롯에게 있어 공감적인 배려는 ‘인간의 덕’의 기초이지만 맥슈에게 있어 ‘공감적인 배려’는 생물학적인 ‘감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46)</sup>

이제 레비나스의 수동성 개념과 생물학적 감성에 기초한 윤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의 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앞서 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중-공통적인 정서를 통해서 윤리학의 기초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III장의 마지막에 제기되었던 문제, 즉 피할 수 없게 드러나는 개별 자아들을 “구체적, 실천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적인 답변을 제시할 최소한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45) Slot, Michael, “Sentimental Virtue and Moral Outline of a Project”, *Moral and Epistemic Virtue*, ed. Michael Brady and Duncan Pritchard, Blackwell, 2003, pp.117~129 참조.

46) 하지만 여기서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공감적 배려를 통한 윤리적 행위의 설명 가능성을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것은 본 논문이 처음 제기한 문제 설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듯이 보인다. 그러한 이유로, 이와 관련된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적실성 있는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감각에 대한 또는 공통 감각에 대한 생물학적-문화적-사회적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이 이러한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 맺음에서 핵심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타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은 선협적이고 초월적인 과정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배려와 공감은 인간이라는 피와 살로 이뤄진 존재자의 윤리적 배경이며, 이러한 배경은 종-공통적인 공통 감각, 공통 정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인 윤리학 이론가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거북하고 심지어 모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론적인 난점은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맥웨의 생물학적인 종-특정적인 감정에 의거한 가치 이론은 레비나스의 이론과 더불어 타인의 고통에 회피불가능하게 요청 받는 현존재들의 감각적, 정서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일련의 어려운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주체는 결국 감각으로부터 비롯하여 윤리(도덕)에 이르는 수동적인 연쇄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아시아 문화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와 의학 교육의 수동적 특성은 동아시아 특유의 육아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인 가족관계적 그리고 수직적 위계질서에 근거한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유한 인간상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수동성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통념으로 굳어진 동아시아의 수동성을 레비나스의 타자에 대한 수동성 개념과 타율성이 갖고 있

는 윤리적 의미를 통해 재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일상적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의료환경과 행위에 적실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수동성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동아시아, 특히 유교적 인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고 동양과 서양을 통합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수동성의 근거에 대한 긍정적 양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가진 의료환경과 교육은 여전히 자율성과 능동성에 기초한 계몽주의적 주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아시아가 가진 태생적 수동성을 문화적 배경의 제약과 한정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말하자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수동성은 그 자체로 지양되고 제거되어야만 하는 개념과 속성이 아니다. 오히려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 감각의 기능이 지각을 통한 수동성으로부터 구성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인간 본연의 감각에 기초한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상호 타자성을 인정하는 관계 속에서 윤리적 수동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문화의 윤리성을 재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준만, 『한국인 코드』, 인물과 지성사, 2006.
- 고윤석 외 24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엮음, 『임상윤리학』 제3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14.
- 기창덕, “춘계의학사회자료”, 서울대학교, 1994.
- 김광호·조미진,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라이온북스, 2012.
- 김동규, 「자유와 능동성을 넘어서-레비나스의 주체 물음에서 수동성과 말함」, 한국철학회, 『철학』105집, 2010.
- 레비나스 저, 김연숙, 박한표 역, 『존재와 다르게-본질의 저편』, 경기: 인간사람, 2010.
- 박경진, “한국 최초 의료선교사 알렌과 제중원(濟衆院)”, 감리교뉴스 한국교회사58, 2013.
- 안덕선, 「의학교육의 역사적 인식」, 『Korean J Med Educ』; 23(2), 2011.
- 안덕선, 「즐거움」, 『영상문화』, 제19호, 2014.
- 안덕선, “11th International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nference” 발표자료, IAMRA, London, United Kingdom, 2014.
- 이성호, 「The Emergence of the Modern University in Korea」, Higher Education, 18, 1989.
- 화이트, 레슬리 저, 이문웅 역, 『문화과학』, 아카넷, 2002.
- Amin, Zubair, et al. “Medical Education in Southeast Asia: emerging issu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Medical Education, vol.39, 2005.
- Bleakley, Alan, et al. “Thinking the post-colonial in medical education”. Medical Education, vol.42, 2008.
- Barnett, Clive, “Ways of Relating: Hospitality and the Acknowledgement of Othernes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1). Academic Medicine,

vol.85, No.2, 2005.

Burggraave, Roger, “Violence and the Vulnerable face of the Other: The Vision of Emmanuel Levinas on Moral Evil and Our Responsibility”,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vol.30 No.1, Spring 1999.

Chang, S, J., “Financial Ethics and Cultural Heritage of Korea”,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15집, 2003.

Hofstede, Geert, et al, “Culture and Organizations”, 3rd ed. McGraw Hill., 2010.

Ho, Ming-jung et al. “A Cross-Cultural Study of Students’ Approaches to Professional Dilemmas: Sticks or Ripples”, *Medical Education*, vol.46, 2012.

Levinas, Emmanuel,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Dordrecht, 1974.

McShea R. J. & McShea, D. W., “Biology and Value Theory”, 『Biology and the Foundation of Ethics』, ed. J. Maienschein & M. Ruse, Cambridge Univ., 1999.

Merviö, Mika Markus, “Spectrum of Public and Private Spheres in East Asia”, *Contemporary Social Issues in East Asian Societies*, IGI Global, Kibi International Univ.(Japan) 2014.

Yum, June Ock, “The Impact of Confucianism on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Patterns in East Asia” *Communication Monographs*, Vol. 55, Routledge, 1988.

Rim, Han Young,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10-194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52.

Slot, Michael, “Sentimental Virtue and Moral Outline of a Project”, *Moral and Epistemic Virtue*, ed Michael Brady and Duncan Pritchard, Blackwell, 2003.

- Tengelyi, László Selfhood, “Passivity and Affectivity in Henry and Levinas”.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Vol.17(3). *The Hermeneutics  
of Action*, ed. Richard Kearney, London: Sage, 1996.
- Zarka, Yves Charles, “Levinas: Humanism and Heteronomy”,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19(1), 2011.

## A Proposal for Improving Korean Medical Culture in Virtue of Re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Passivity

Jeon Daeseok\* · Ducksun Ah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and reveal the peculiar aspect and property of passivity in Korean environment for medical education, and to make a proposal for improving Korean medical culture in virtue of re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Levinas' passive-passivity. And if the purpose is fully fulfilled, then it will try to seek for the possibility of explaining human behavior based on the biological species-specific sense and emotion.

Medical education in East Asian countries was originated from colonialism. Therefore, medical education in each East Asian country has different aspects through ways that depend on each colonial acculturation agency. East Asian nations succumbed to colonialism without much resistance. In this historical context, we can grasp the trait of Korean medical culture and education.

A recent discovery of the new meaning of passivity and heteronomy by Levinas opened a new realm of ethical views, which support noble refinement of the problematic passivity in Korean medical culture. The problematic medical culture of Korea could be enhanced in terms of a conception of “passivity” whose concept was sublimated by Levinas. The

---

\*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Korea Univ. College of Medicine

\*\* 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Korea Univ. College of Medicine

aptness of this direction of improvement will be shown in a discours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thoughts of Levinas and traditional Confucianism.

And if the new concept of passive-passivity (passivity for other-ness) in terms of Levinas is reasonable, we must seek the conceptual and practical theory which is applied to the real Korean medical educational environment. The sympathetic ethical theory based on biological and species-specific sensational ground have a merit of explaining the phenomenon of human action since that approach well accounts for human behaviors in terms of sense, perception and emotion. If it is plausible, then this attempt may be a meaningful challenge which tries to offer a new moral foundation of ethical passivity and heteronomy.

Key words: Passivity, Levinas, otherness, sense, sympathy

필자 E-Mail: moresphil@korea.ac.kr / dsahn@korea.ac.kr

투고일: 2015년 6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5년 7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5일